

# 〈九雲記〉에 미친 〈鏡花緣〉의 影響

陸 宰 用

## 〈目 次〉

- |                   |             |
|-------------------|-------------|
| I. 머리말            | III. 影響의 양상 |
| II. 〈경화연〉의 서지와 경계 | IV. 맺음말     |

### I. 머리말

〈구운기〉는 윤영옥 교수에 의해 발굴, 번역되어 학계에 소개<sup>1)</sup>된 이래, 필자에 의해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sup>2)</sup>된 바 있다. 필자는 줄고에서 〈구운몽〉을 개작한 〈구운기〉는 〈구운몽〉과의 대비를 통해서만 그 독자적인 특성이 잘 드러난다고 보고, 일단은 〈구운몽〉과의 대비 연구에 논의의 주안점을 두고 작품을 분석하였다. 또한 〈구운기〉는 〈서유기〉, 〈홍루몽〉, 〈경화연〉등의 영향을 받아 구성을 다채롭게 변화시키기도 하였으므로, 〈구운몽〉과의 대비를 하면서 동시에 앞서 언급한 중국소설의 영향 관계도 함께 고찰하였다. 그 결과, 후자의 방법론에 의해서는, 〈구운기〉는 〈서유기〉<sup>3)</sup>와 〈경화연〉의 영향을 받아 서두에서 서왕

1) 윤영옥, 「〈구운기〉攷」, 『조선후기의 언어와 문학』, 한국어문학회 편, 형설출판사, 1978.  
윤영옥, 「〈구운기〉(1), (2), (3)」, 형설출판사, 어문총서, 1982.

2) 육재용, 「〈구운기〉연구〈구운몽〉과의 대비 및 중국소설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논문, 1986.

3) 〈서유기〉의 영향은 삽화의 직접적 차용이 아닌, 〈서유기〉 제 5회와 100회의 즐거리를 염두에 두었다가 〈경화연〉 제 1회의 삽화와 자연스럽게 연결시킨 정도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앞의 논문, pp. 71~73. 참조.)

모의 반도연과 결부된 천상 세계를 길게 소개하여 공간적 배경을 보다 규모가 크고 다채롭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홍루몽>에서 차용한 삽화를 서사의 흐름에 맞게 적절히 가미시켜 구성을 다채롭게 하는 동시에, 작중인물들이 누리는 평화롭고 한가로운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하지만 위에서 살핀 사항은 당시 필자의 시간적 제약과 연구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언젠가는 다시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후 <구운기>에 관한 연구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 최용철 교수에 의해 주목을 받고, ‘<구운기>에 대한 <홍루몽>의 영향’이란 부제하에 <홍루몽>과 <구운기>의 영향 관계가 필자의 논의를 보완해서 새롭게 이루어졌다.’ 이로써 우리는 ‘<구운기>에 미친 <홍루몽>의 영향’의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다. 하지만 위의 논문은 어디까지나 발신자의 시점에서 <홍루몽>이 우리 나라에 전해진 뒤, 우리 문학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보려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글이므로, <구운기>와 <홍루몽> 이외 작품과의 영향 관계는 여전히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구운기>의 특성을 온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홍루몽>과의 영향 관계 못지 않게, <경화연>등과 같은 기타 소설과의 영향 관계<sup>4)</sup>도 규명하여야 한다. 즉 수신자의 입장에서 <구운기>의 원천을 살펴볼 수 있는 데까지 살펴보아야만 한다.

결국 본고는 <구운기>의 원천연구의 일환으로 ‘<구운기>에 미친 <경화연>

- 
- 4) 최용철, 「<홍루몽>의 한국전래와 영향 연구」, 『중국어문논총』 제 4집, 고대 중국어문연구회, 1991.
  - 5) <구운기>에 영향을 미친 중국소설로는 <서유기>, <홍루몽>, <경화연>, <수호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서유기>와 <수호전>은 영향의 정도가 미미하므로 본고에서는 <경화연>만을 대상으로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운기>에 미친 <수호전>의 영향은 제 Ⅲ장 뒷부분에서 언급한 내용 참조.

의 영향'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경화연〉의 書誌와 梗概 및 〈경화연〉에 대한 기존 논의를 간략하게 살펴보고<sup>6)</sup>, 영향의 수수관계가 확연히 드러난 두 작품간의 장회와 영향의 실상을 도표로 제시한 뒤, 영향의 양상이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앞서 언급한 〈홍루몽〉과의 영향 관계 고찰에서 얻어진 결론과 함께 다루어 〈구운기〉의 원천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작품의 가치와 문학사적 의의를 논해보고자 한다.

## II. 〈경화연〉의 서지와 경계

〈경화연〉은 清代의 李汝珍(1763~1830)에 의해 창작된 100회의 回章體小説로서, 아직까지 일반독자나 학계에 〈홍루몽〉만큼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sup>7)</sup>, 한중소설을 비교문학적으로 연구하려는 자리에서는 소홀히 취급될 수 없는 중요한 자료이다. 더구나 이제까지 우리 고소설과 중국소설과의 비교연구의 영역이 청대 이전의 소설에 머물러 있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비교연구 대상의 범위를 청대소설에 까지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sup>8)</sup>된 때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경화연〉은 성현경 교수가 조선조소설에 드러난 적강화소의 외재적 원천을 살펴보는 가운데, 천상계에 玉帝가 등장하고 적강화소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고찰<sup>9)</sup>한 이래 몇 차례 학계에 소개가 되었다. 먼저 하정욱 교수에 의해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sup>10)</sup>, 이어진과 〈경화연〉에 대한 작가론과 작품론이 구체

6) 〈구운기〉의 서지와 〈구운몽〉과의 차이점 및 사상과 주제에 관해서는 앞의 註 1), 2)의 논문 참조.

7) 〈홍루몽〉의 한글 번역본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국내, 국외를 합쳐 모두 9종이 나왔으나, 〈경화연〉의 현대 한글 번역본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홍루몽〉의 번역 현황과 연구의 개황에 관해서는 앞의 註 4)의 논문 제 4장 참조.

8) 정규복, 「고소설과 중국소설」, 『한국고소설론』, 한국고소설연구회 편, 아세이문화사, 1991, p. 315.

9) 성현경,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 p. 87.

10) 하정욱, 「〈경화연〉연구」, 성균관대 중문과 박사논문, 1983.

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작품의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 후 정규복 교수는 <第一奇諺>이란 <경화연>의 번역소설을 발굴하여 19세기 초엽 홍희복(1794~1859)에 의해 <경화연>이 한글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소개하였고<sup>11)</sup>, 오문의 님은 서왕모 신화가 현대 소설문학에 어떠한 형태로 반영되었는가를 밝히면서 <경화연>을 언급하였다.<sup>12)</sup> 그 후 필자에 의해 <경화연>과 <구운기>의 영향 관계 고찰이 간략히 이루어진 바 있다.

臺北 桂冠圖書公司에서 간행한 <경화연> 上篇 앞부분에 실려있는 「前言」에서는 전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경계를 설명하고 있고<sup>13)</sup>, 역시 同書 下篇에서 徐士年은 전체를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내용을 살피고 있다.<sup>14)</sup> 하정옥 교수도 위의 논문에서 <경화연>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경계를 서술하고 있는데<sup>15)</sup>,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경화연>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째 부분은 제 1~6회로서 百花仙子가 인간세상에 降生하게 되는 경과를 그리고 있다. 봉래산의 백화선자가 다른 仙人들과 함께 崑崙山의 서왕모 성탄을 맞아 祝壽하고자 반도승회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상아가 백화를 총괄하는 여신 백화선자에게 모든 꽃이 한꺼번에 피도록 명하여 흥을 돋구자고 제의하였으나, 백화선자는 上帝의 칙지도 없이 時序를 어기고 모든 꽃을 한꺼번에 피도록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상아의 미움을 샀다. 한편 천계의 心月狐가 下界하여 태어난 武則天이 당제국의 정권을 탈취하여 국호를 周라 고치고 아들인 중종을 폐위시키고서 자신이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가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唐室의 舊臣 서경업·낙민왕 등이 起兵하여 당실의 회복을 기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바로 이 여황제 무즉천이 대설이 내리

11) 정규복, 「<재일기언>에 대하여」, 『중국학논총』, 제 1집, 고대 중국학연구회, 1984.

12) 오문의, 「서왕모신화연구」, 서울대 중문과 석사논문, 1984, pp. 61~62.

13) 「<경화연>上」, 桂冠圖書公司, 1988, pp. 1~2.

14) 徐士年, 「談談鏡花緣」, 『<경화연>下』, 앞의 책, pp. 785~786.

15) 하정옥, 앞의 논문, pp. 58~62.

는 어느 추운 겨울날 술에 취하여 백화를 齊放케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때 마침 백화선자가 출타중이어서 여러 花神들은 지시를 받을 길이 없어 하는 수 없이 황제의 명대로 꽃을 피우고 말았다. 때문에 상제는 백화선자가 上奏도 하지 않고 제때가 아닌 때에 꽃을 피워 인간 세상의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였다는 이유로 백화선자와 기타 99花神을 인간 세상으로 貶降시켜, 백화선자는 영남의 한 秀才 唐敖의 딸로 태어나 이름을 小山이라고 하였다.

둘째 부분은 제 7~40회로서 당오·임지양·다구공의 해외에서의 전문과 당오의 出家를 그리고 있다. 당오는 長安에 가서 과거에 응시하여 探花에 급제하였으나, 일찍이 무주천에 반대하여 起兵하였던 서경업·낙빈왕 등과 異姓兄弟를 맺은 적이 있었다는 告發로 인하여 탐화를 박탈당하고 도로 예전의 수재로 떨어졌다. 이에 실망한 나머지 정치없이 유랑하던 당오는 어느 古廟에서 꿈을 꾸다가 한 老子로부터 成仙 得道하는 방법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듣게 된다. 그후 마침 해외에 장사 나가려던 처남 임지양의 배를 타고 함께 곳곳을 유람하면서 울분을 풀고, 君子國·大人國·勞民國 등 수많은 나라를 지나며 기이한 風俗과 사건에 접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당오는 고묘의 노자로부터 들은 비와 같이 홍진에 떨어진 100花 가운데 불행히 해외에 떠도는 12名花를 만나 도와주고, 도중에 仙草를 먹고 초탈하여 소봉래도에 이르러서 산에 들어간 이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셋째 부분은 제 41~53회로서 당오의 딸 당소산이 해외에 나가 아버지를 찾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당오가 소봉래도에 歸隱한 사실이 당오의 아내와 딸 소산에게 알려지자, 당소산은 외삼촌을 졸라 해외로 아버지를 찾아나서 한편으로는 장사를 하면서 지난번의 길을 따라 온갖 위험을 다 겪으며 소봉래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끝내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나뭇군으로부터 아버지의 편지만을 전해 받았다. 편지에는 小山的 이름을 閨臣으로 바꾸도록 하고, 그녀가 才女에 뽑힌 후에 만나자는 말이 써어 있었다. 한편 그녀가 산중에 갔을 때, 山上에 泣紅亭이 있고 그 정자 안에 있는 비석에 100명의 화신이 주관하는 꽃 이름과 그들이 인간 세상에 降生한 후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그 이름 아래 각자의 史蹟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 당규신은 그 비문을 전부 베껴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왔다.

넷째 부분은 제 54~94회로서 才女들이 女科에 應試하러 가고, 급제한 100재녀가 이틀 동안의 연회에서 놀이를 하고 헤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무즉천이 女試를 開科하여 100명의 재녀를 뽑았는데, 그 100재녀의 이름과 석차가 음흉정 비문에 적힌 것과 같았다. 무후는 일등재녀 50명에게 女學士職을, 이등재녀 40명에게 女博士職을, 삼등재녀 10명에게 女儒士職을 제수하고 각기 金花 한 쌍씩을 내린 다음 연회를 베풀도록 하였다. 재녀들은 발표가 있는 후 이틀 동안에 여러 차례 경축연을 열고, 연회중에 書·畫·琴·棋·醫·卜·算法·酒令·雙陸·投壺 등 갖가지 놀이와 笑話를 즐기고는 각자 헤어져 고향으로 돌아갔다. 당규신도 고향에 들른 다음 안자초와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소봉래도로 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다섯째 부분은 제 95~100회로서 무즉천을 토벌하고 당실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서경업·낙빈왕 등의 아들과 검남절도사 文芸(문운)이 연합 기병하여 무즉천 토벌에 나섰고, 재녀 가운데 수십인이 夫婦 또는 姻親 관계로 이에 참가하여 여러 사람이 軍中에서 순사하였다. 결국 反武軍은 武家軍의 四개 陣을 깨뜨리고 무후의 통치를 물리쳐 唐 中宗의 복위를 이룩하였다. 중종이 복위한 다음 무즉천은 '則天大聖皇帝'로 존호되었다. 이에 무후는 또 조서를 내려 이듬해에도 女試를 개과할 것과 전에 뽑힌 재녀들도 그때 다시 紅文宴에 참석하여 즐 것을 선포하였다.

이상으로 작품의 줄거리를 간략히 살펴 보았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경화연>은 대략 1809~1810년 경부터 1820년 사이에 저작되었고, 판본으로는 1828년에 刻成된 芥子園本을 初刻本으로 치고 있다.<sup>16)</sup>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필자는 <경화연>이 1830년 전후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고 보아, <구운기>의 창작시기를 1830~1900년 사이로 추정할 바 있다. 이는 앞서 정규복 교수가 소개한 <제일기언>의 번역이 1835~1848년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sup>17)</sup>을 염두에 두더라도 <경화연>의 한국 전래는 꽤 일찍부터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6) 하정옥, 앞의 논문, pp. 52~54.

17) 정규복, 앞의 註 11)의 논문, p. 79.

<경화연>에 관한 기존 논의 중 본고의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魯迅은 「中國小說史略」 제 25편 '淸의 才學을 나타낸 소설장에서, <경화연>을 가리켜 작자가 博識多通하여 소설에서 學藝를 論說하고 典을 들어 經을 언급하기를 連篇累牘으로 한 萬寶全書(百科全書)와 비슷하다고 했다.<sup>18)</sup> 李辰冬은 '世界書局本 <경화연>' 앞부분에 실은 글에서 <경화연>의 의의는 민족적 기개를 나타낸 데에 있으며, 작품의 성공은 그것이 고도의 상상력으로 사회를 비평한 데 있고, 그 약점은 생활의 표현이 적고 학문·지식의 표현이 많은 데 있다고 했다.<sup>19)</sup> 하정옥교수는 <경화연>이 唐朝 무즉천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여러 가지 신화·전설과 유희를 동원하여 우연적인 묘사 수법으로 무도한 포학통치와 사회의 부패 및 갖가지 불합리성을 풍자하는 한편 이상사회의 모습을 제시한 이상소설이라 했다. 또한 그 속에는 儒家의 忠孝에 뿌리를 박고 道教의 得道成仙과 佛教의 因果論이 보태어진 李汝珍 思想의 독특한 면모가 드러나 있다고 했다.<sup>20)</sup>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 가운데는, 작품의 주제와는 상관 없이 서술태도만을 고려할 때, <구운기>의 그것과도 유사한 점이 어느정도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상론하고자 한다.

### Ⅲ. 영향의 양상

이상 앞장에서, 본론 전개를 위한 기본 사항으로, <경화연>의 서지와 경계 및 <경화연>에 관한 기존 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고의

18) 魯迅, 「中國小說史略」, 정범진 역, 학연사, 1987, pp. 288~295.

19) 鏡花緣의 意義到底是什麼呢? 我們認爲是在表現民族氣節, 其次在表現達觀思想, 只先談民族氣節, …… 鏡花緣의 成功, 在它以高度的想像來批評社會; 而它的弱點, 在生活的表現少, 學問知識의 表現多. (李辰冬, 「鏡花緣의 價値」, 「鏡花緣」, 世界書局, 1965, p. 8, 11.)

20) 하정옥, 앞의 논문, p. 109, 114.

주된 목적인 <경화연>과 <구운기>사이에 드러난 영향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서술의 편의상 두 작품 사이에 드러난 영향의 실상을 먼저 도표로 제시한 뒤에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경화연	구운기	영향의 실상
1회 女魁星北斗垂景象 老王母西池賜芳筵	1회 西王母瑤池宴蟠桃 釋性眞石橋戲明珠	작품의 내용과 집필 목적 설명 (導言에 해당, 스토리 외적 수준 의 서술) 서왕모가 베푼 반도연 장면*
1회	3회 百花姑合席說功過 八仙娥同時降塵凡	백화선고의 꽃의 功過賞罰에 대한 花論
5회 俏宮娥戲誇金盞草 武太后怒貶木丹花	34회 庾太君大宴群芳院 兩公主文誓白衣佛	꽃에 대한 評(十二師, 十二 友, 十二婢)
6회 衆宰承宣遊上苑 百花獲譴降紅塵	35회 楊丞相陳疏乞養 眞上人返本還原	양승상이 각몽과정에서 복용한 仙芝에 관한 내용
44회 小孝女嶺上訪紅藥 老道姑舟中獻瑞草	35회	上同 양승상의 각몽 직전 화상과의 문답 내용
46회 施慈悲仙子降妖 發慷慨儲君結伴	35회	양승상의 각몽 직전 화상과의 문답 내용
61회 小才女亭內品茶 老總兵園中留客	31회 英陽主細評柏葉茶 白凌波雅宜牙牌令	두 공주와 여섯 남자들의 茶에 관한 대화 내용*
70회 述奇形蠶繭當小帽 談異域酒罇作烟壺	33회 三場試六子聯金榜 九雲樓八美說笑話	장사꾼의 장인국·소인국 표류 소화
71회 觸舊事神往泣紅亭 聯新交情深凝翠館	35회	양승상이 각몽 직전 九雲樓에서 두공주와 여섯남자 및 여러 자손 들을 모아 놓고 下敎한 내용*



75회 弄新聲水射吹簫 隱俏體紗窓聽課	32회 蘭陽主約詠美人詩 桂蟾月關趣般角令	구더기와 黃食 소화
78회 運巧思對酒縱諧談 飛舊句當筵行妙令	33회	여동빈의 點石成金之術 소화 당나귀의 주인에 대한 抗命 소화 富翁의 중 학대 소화
84회 逞豪興郎吟妙句 發婆心敬誦眞經	33회	부체에 글 써주는 소화
85회 論韻譜冷言譏沈約 引毛詩佳句美莊姜	32회	和尚의 禪機 소화
85회	33회	위의 (32회) 선기 소화를 응용한 소화
86회 念親情孝女揮淚眼 談本妙侍兒解人頤	33회	王氏 형제의 作名 소화 武士의 射鵠 소화 老翁의 一手屎 소화 공야단의 長技 소화 공야왜의 長技 소화
87회 因舊事遊戲仿楚詞 郎美景詠譜編月令	33회	말더듬이의 穀穀 소화
91회 折妙字換柱抽梁 掣牙籤指鹿爲馬	34회	꽃에 대한 評(十二師, 十二友, 十二婢)
91회	33회	解者의 회상 호송 소화 도학선생과 소년의 문답 소화
93회 百花仙卽景露禪機 衆才女盡歡結酒令	33회	醉漢의 冥官 대면 소화 선생의 방귀꺼는 소화
100회 建奇勳節度還朝 傳大寶中宗復位	1회, 35회	작품의 집필 과정 설명(스토리 외적 수준의 서술)

(\*는 影響의 정도가 심한 부분임)

위의 도표에서 <경화연>은 1~100회 중 17회의 장회가 <구운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고, <구운기>는 1~35회 중 7회의 장회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로 보아 <경화연>은 작품의 초반부 몇 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반부 이후에서 영향을 주었고, <구운기>는 1, 3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31~35회의 후반부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영향은 모두 삽화의 직접적인 차용에 관한 것인데<sup>21)</sup>, 도표에 제시된 순서대로 두 작품간에 이루어진 삽화의 차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화연> 1,100회와 <구운기> 1,35회에서 이루어진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구운기>라는 표제<sup>22)</sup>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자는 <구운기>가 허구적 서사체라기보다는 역사적 기록물이며, 따라서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이야기를 글로 옮겨 후세에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풍기고 있다. 또한 <구운기>는 시점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서술 수준의 중층 구조에 의한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포함된 액자소설 형식을 취하고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서술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하고 있다. 그런데 <구운기> 1, 35회에 드러난 이러한 서술 형태<sup>23)</sup>는 모두 <경화연> 1, 100회에서 영향 받은 요소이다. 또한 <구운기> 1회에는 머리말에서 밝힌 대로 서왕모의 반도연과 결부된 천상 세계를 길게 소개하

21) 영향의 범주로는 '영향, 모방, 표절, 번안(개작), 암시'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삽화의 차용은 엄밀한 의미에서 '표절'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김학동, 「비교문학론」, 새문사, 1984, pp. 40~41. 참조.)

22) 고소설의 표제에서 흔히 '-몽' 자는 異域과 過去를 동경하는 꿈이나 혹은 無常觀에서의 '꿈'과 같은 인생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록' 자·'-기' 자는 사실에 있는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정주동, 「고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85, p. 72.)

23) 서구의 문학과는 달리, 중국서사문학에서 허구적 서사물이 역사적으로 있음직한 일반화된 사실을 전달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화자가 講言 부분이나 결말의 논평란에서 되풀이하여 역사편찬적인 修辭(the rhetoric of historiography)를 흉내내기 때문인데, <경화연>과 <구운기>도 이 점에 있어선 예외가 아니다. (Andrew H. Plaks, *Issues in Chinese narrative theory in the perspective of the western tradition*, 「PTL: A Journal for Descriptive Poetics and Theory of Literature 2」,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1977, p. 349. 참조.)

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도 〈경화연〉 1회에서 삽화를 그대로 차용하였다.<sup>24)</sup>

다음은 〈경화연〉 1회와 〈구운기〉 3회에서 이루어진 영향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구운기〉 3회에서 백화선자(백화선고)는 남악위부인의 여덟 시녀의 진혼을 인간세상으로 적당시키고 있는데, 이에 앞서 백화선자는 남악위부인에게 꽃의 功過 賞罰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다.

원군께서는 모르시는군요. 어찌 꽃에 공과상벌이 없겠습니까? 백화는 다 神을 가져 밀등을 마금고 꽃반침을 토해 낼 아름다움을 드러내어 조금도 잘못됨이 없습니다. 이를 일러 공이라 합니다. 다음 해 조란 안이나 수규 앞에 옮겨 심어 깨끗한 흙을 덮어 재배하고 맑은 물을 대어 주면 시인의 제품이 되고 상객이 유연할 수 있게 합니다. 꽃은 날로 영화를 더해 장려됩니다. 만약 어긋남이 있으면 조사해서, 분별하여 벌주기를 청합니다. 그 가장 무거운 것이 나무나 정자나 역관에 마구 심어져 사람이 마음대로 휘어잡아 꺾을 뿐 아니라, 진흙과 흙에 묻히어 말의 발과 수레바퀴에 짓밟히게 됩니다. 그 다음 무거운 벌은 벌이 다투고 나비가 시끄럽게 굴며 이리저리 날아 파고 들며, 비가 때리고 서리가 재촉해서 곧 말라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가벼운 벌이 심산궁곡에 귀양보내져 靑眼을 만나기 드물고, 紅顏 그 누가 보아주겠습니까? 시들어 떨어지는 소리만 듣고, 또 멧대로 묻혀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고락이 있습니다. 소선이 명을 받들어 오직 삼가하고 감히 여기거나 늦잡힐 수 없습니다.<sup>25)</sup>

(元君有所不知。哪裏花無功過賞罰? 百花俱有神, 如含苞吐萼之時, 如式呈妍,

24) 이 대목에 관한 상세한 논의와, 두 작품간의 구체적인 예문 대비는 '줄고, 앞의 註 2)의 논문, pp. 26~27., pp. 73~74.' 참조.

25) 윤영옥, 「〈구운기〉 (1)」, 형설출판사, 어문총서, 1982, pp. 57~58.

果無舛誤，是謂之功。來歲即移雕欄之內，繡闥之前，使得淨土栽培，清泉灌溉，邀詩人之題品，供上客之流連。花日增榮，以爲獎勵。設有違錯參察，奏請分別示罰。其最重的，徙種津亭驛館，不特任人攀折，兼使沾泥和土，見蹂於馬足車輪。其次重的，蜂爭蝶鬧，旋見凋殘，雨打霜催，登時零落。其最輕，亦謫置於深山窮谷之中，青眼稀逢，紅顏誰顧？聽其萎謝，一任沉埋。有此種種之苦樂罷。小仙奉令惟謹，不敢參差，又不敢延緩了呢。)<sup>26)</sup>

이러한 대목은 <경화연> 1회에서 영향 받은 요소이다. 여기에서는 서왕모의 반도승회에 참석한 상아가 백화선자에게 모든 꽃들을 한꺼번에 피우도록 하자 백화선자는 時序를 어기고 꽃들을 피우게 할 수는 없다고 거절하면서 상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又命催花使者，往來保護，以期含苞吐萼之時，如式呈妍。果無舛錯，註明金籙雲籤。來歲即移雕欄之內，繡闥之前，令得淨土栽培，清泉灌溉，邀詩人之題品，供上客之流連。花日增榮，以爲獎勵。設有誤違，糾察靈官奏請分別示罰。其最重的，徙植津亭驛館，不特任人攀折，兼使沾泥和土，見蹂於馬足車輪。其次重的，蜂爭蝶鬧，旋見凋殘，雨打霜催，登時零落。其最輕的，亦謫置深山窮谷，青眼稀逢，紅顏誰顧；聽其萎謝，一任沉埋。有此種種考察，是以小仙奉令惟謹，不敢參差，亦不敢延緩。<sup>27)</sup>

다만, 두 작품에 드러난 문맥을 고려할 때, <경화연>에서는 백화선자가 적당하는 주체로 나타나는데 비해, <구운기>에서는 백화선자가 팔선아를 적당시키는 사자(안내자)로 나타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경화연> 5, 91회와 <구운기> 34회에서 이루어진 영향인데, 이 대목

26) <九雲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문과문고 소장, 1권 3회 51~52면.

27) 李汝珍, 「<鏡花緣> 上」, 桂冠圖書公司, 1988, p.5.

은 주목을 요할 필요가 있다. 〈구운기〉 34회는 양승상이 여러 아들과 며느리를 거느리고 유태군을 모신 뒤, 군방원에서 온가족들이 잔치를 여는 것으로 시작된다. 잔치가 무르익자 난양공주는 진숙인에게 꽃에 대한 ‘십이사, 십이우, 십이비’를 이야기 하라고 해서 진숙인과 가유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진숙인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소위 師라는 것은 토론, 난화, 매화, 국화, 계화, 연화, 작약, 해당, 수선, 납매, 두견, 옥란들로, 혹 그 향기는 먼 나라에서 피어오는 듯, 색깔도 비할 데 없이 곱습니다. 이 열두 종을 상등으로 치는 것은 꽃이 필 때 비록 완상은 하나 이것을 대하고 있으면, 태능, 의원, 골중, 항엄하여 숙연해지며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스승으로 모시게도 됩니다. 그래서 십이사라고 부르지요.”—中略—

또 가유인이 이어서 말했다.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봉선화를 婢의 무리 속에 끼워넣습니까? 이미 말한 대로 부용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저버려 그 성질이 무상하여 友의 옆에 끼워넣을 수 없다 했는데, 봉선화는 만약, 물만 잘 준다면 열매맺지 않고 석달 동안 오래도록 피게 할 수 있습니다. 속설에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좋은 날이 천일이 없고, 꽃에는 백일 동안 붉은 게 없다고 하였지만, 봉선화로 논할 것 같으면 실로 백일의 붉음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만 보더라도 꽃잎이 몇 겹으로 쌓여 있는 것, 또 꽃잎이 나란히 퍼 있는 것, 각종의 모양이 하나같지 않고, 없는 게 없습니다. 도홍 한 종류만 하더라도 그 빛깔의 질고 열음이 서너 종류나 되니 그밖에야 생각해 보면 알 게 아닙니까?”—下略—<sup>28)</sup>

그런데 이러한 대목을 〈경화연〉으로부터는 5회와 91회 두 곳에서 삽화를 취해

28) 〈구운기〉 (3), pp. 224~227. (以後 〈구운기〉라 하면 번역본 〈구운기〉를 가리키고, 〈九雲記〉라 하면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을 가리킨다. 여기서도 앞에서 든 예문과 같이 〈九雲記〉의 원문을 직접 인용해야 하겠으나, 그렇게 할 경우 서술이 지나치게 번거로워 지고, 또한 번역본만을 인용해도 논지 전개에 지장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九雲記〉의 원문 인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하기로 한다.)

와 <구운기>에서는 한 장면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경화연> 5회에서는 모란이 무후의 명을 거역하고 꽃을 피우지 않았다고 해서 상림원에 있는 모란을 불태운 뒤, 공주와 上官婉兒가 주고 받는 대화에서 위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上官婉兒道：「這是奴婢偶爾遊戲，倘說的不是，公主莫要發笑。所謂師者，卽如牡丹，蘭花，梅花，菊花，桂花，蓮花，芍藥，海棠，水仙，蠟梅，杜鵑，玉蘭之類，或古香自異，或國色無雙，此十二種，品列上等。當其開時，雖亦玩賞，然對此態濃意遠，骨重香嚴，每覺肅然起敬，不齊事之如師，因而叫作「十二師」<sup>29)</sup>

단지 작중인물만 달리 드러나고 있는데, <경화연>에서의 공주가 <구운기>에서는 난양, 영양으로 대체되었고, 上官婉兒는 진숙인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경화연> 91회에서는 여과에 급제한 100재녀들이 갖가지 놀이와 소화를 즐기는 중, 재녀 중의 하나인 紫菱이 여러 재녀들에게 자기가 이전에 들었던 36 종류의 꽃을 '師, 友, 婢'로 잘못 분류한 데 대한 의문을 제기한 뒤, 婢의 무리에 속한 봉선화를 友의 무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紫菱道：「妹子聞他向日曾以牡丹等類三十六花分爲師，友，婢，上，中，下三等，別的失當之處也不管他，我只不服爲何好好把個鳳仙列之於婢？他說芙蓉朝開暮落，其性不常，不能列之於友。至於鳳仙，非芙蓉可比，若澆灌得宜，不使結子，能開三月之久，俗語說的「花無百日紅」，以鳳仙而論，實有百日之紅，向來有千層的，有並蒂的，又有一株而開五色的：各種顏色，無一不備。卽如桃紅一種，就有深淺三四等之分，其餘可想而知。」<sup>30)</sup>

29) <鏡花緣> 上, p. 23. (以後 <鏡花緣>이라 하면 '桂冠圖書公司'에서 간행한 것을 가리킨다.

30) <鏡花緣> 下, p. 707.

이러한 대목을, 앞에서 든 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구운기>에서는 <경화연> 5회의 내용 바로 뒤에 오게 하고, 작중인물만 가유인으로 대체하였다. 말하자면 <경화연>에서는 두 개의 장화로 나뉘어져 서술된 내용을 <구운기>에서는 한 대목으로 묶어 자연스럽게 처리하고 있다. 이는 <구운기>의 작자가 작품을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경화연>의 내용에 정통해 있었음을 말해 준다. 게다가 작자는 창의력을 발휘해서 위의 내용이다 더 보태어, <경화연>에는 없는 부분인, 옥잠화가 서른 여섯 종에서 제외된 아쉬움과, 봉선화가 아름답기는 하나 높은 등급에 끼일 수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서술하고 있다.<sup>31)</sup>

이어서 <경화연> 6. 44회와 <구운기> 35회에서 이루어진 영향 관계를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구운기>의 결말 부분에는, <구운몽>의 이 대목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양소유가 각몽 직전에 仙芝를 복용하는 장면이 있다.

“대선께서 손에 들고 계시는 것은 무슨 仙草입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주려고 합니까?” -中略- 화상은 손에 쥐고 있던 芝草를 위왕에게 넘겨주면서 말했다. “청컨대 승상께서는 이 仙芝를 먹어 더러움을 씻어내고 마음에 전세의 인연을 얼마간 깨우친 뒤에 우리 다시 이야기 합시다.” 위왕은 그것을 받아 감사하고 나서 芝草를 먹었다. 먹자 마자 청신이 맑고 마음이 상쾌해짐을 느끼고…….”<sup>32)</sup>

이러한 선지 복용 장면은 <경화연>의 다음 대목에서 영향받은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경화연> 6회에서 백화선자는 上帝에게 上奏도 하지 않고 제때가 아닌 때에 마음대로 꽃을 피우게 했다는 죄명으로 下界로 投胎託生하게 된다. 託生하기 직전 백화선자는 여러 仙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별을 아쉬워 하는데, 그때 百獸·百鳥·百介·百鱗 등의 四仙子는 백화선자가 떠날 때 송별연을 할 수가 없으니 대신 그에게 특별히 靈芝 한 가지를 바친다.<sup>33)</sup> 또한 百草·百果·

31) <구운기> (3), p. 227.

32) <구운기> (3), pp. 257~258. (윗점 필자)

33) 四仙向百花仙子道：仙姑此去，小仙等無以奉饒，特贈靈芝一枝。(〈鏡花緣〉上, p. 34. 윗점 필자)

百穀·元女·織女·麻姑 등의 여섯 仙子도 작별에 임하여 海島深山에서 우연히 찾아낸 回生仙草 한 가지를 특별히 백화선자에게 선사한다.<sup>34)</sup> 이에 백화선자는 황급히 여러 선자들을 향하여 사례하며 받은 뒤에, 百草仙자에게 仙芝를 대신 저두어 보관하고 있다가 훗날 返本還原之用으로 대비하라고 부탁한다.<sup>35)</sup>

仙芝에 관련된 이러한 대목은 곧 <경화연> 44회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즉 백화선자가 下界하여 태어난 당소산이 아버지를 찾으러 소봉래도로 가는 도중 東口山에 이르렀는데, 이 때 以前의 동료 女仙이었던 百草仙자가 道姑로 轉化하여 손에 한 가지 芝草를 들고 나타나 당소산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我是蓬萊百草仙 與卿相聚不知年  
因憐謫貶來滄海 願獻靈芝續舊緣<sup>36)</sup>

(나는 봉래산의 백초선자, 그대와 함께 지내기 몇 해였던가.

넓은 바다에 적강하여 와 있는 것 가련하여, 靈芝를 바쳐 옛 인연 이어보고파.)

그리고 나서 백초선자는 함께 있던 多九公에게 靈芝는 원래 仙品이어서 만약 인연있는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선계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한다.<sup>37)</sup> 또한 당소산에게는 선지를 복용하여 凡心을 씻어 없애고 만약 전연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들은 더욱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먹기를 청한다.<sup>38)</sup> 이에 당소산이 사례하며 선지를 받아 먹자, 정신이 맑고 기운이 상쾌해짐(神清氣爽)을 느끼고, 들은 전생의 숙연에 관해 이야기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구운기> 35회의 양승상이 각몽 과정에서 복용한 仙芝에 관한

34) 我等偶於海島深山覺得回生仙草一枝，特來面呈，以爲臨別之贈。(上同)

35) 百花仙子忙向衆仙道謝拜領，卽託百草仙子代爲收存 以備他年返本還原之用。(上同)

36) <鏡花緣> 上, p. 327. (윗점 필자)

37) 靈芝原是仙品，如遇有緣，自能立登仙界。(上同)

38) 且請女菩薩把這仙芝用過，滌滌滌滌凡心，倘悟些前因出來，我們更好談了。(上同)



내용은 〈경화연〉 6, 44회에서 영향을 받은 요소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앞서 註 32)에서 예로 든 〈구운기〉의 가운데 부분의 내용은 註 38) 번에 나타난 〈경화연〉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다만 작중인물만 달리 나타나는데, 〈경화연〉에서의 백초선자와 여보살(당소산)이 〈구운기〉에서는 화상과 승상(위왕)으로 대체되었다.

다음은 〈경화연〉 44, 46회와 〈구운기〉 35회에서 이루어진 영향 관계를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영향을 받은 〈구운기〉 35회의 내용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한 和尚이 미치광이처럼 손에 한 가지의 靈芝를 들고 와서 앞에 섰다.) 위왕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선사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빈도는 고해변을 지나 회두안을 따라가면 있는 율회동에서 왔습니다.” 위왕은 머리를 끄떡이고 다시 물었다. “대선께서는 이제 또 어디로 가십니까?” “저곳에 가면 좌선도가 있는데 반본도라고 합니다. 그 섬 안에 仙同이 있는데 환원동이라고도 합니다. 나는 거기로 합니다.” 위왕은 말을 마치기를 기다리지 않고 또 물었다. “대선께서 찾아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찾아가는 분은 신선도 도사도 아니요, 대자대비한 한 先覺化身입니다.” 위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 가운데 깨달은 듯 모를 듯 취한 듯 켜 듯 알지를 못하고 멍청히 오래도록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절하고 말았다. “제자 어리석어 이 고해에서 벗어날 수 없아오니 대선께서는 하나의 확고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대선께서는 자비심을 크게 베푸시어 홍진의 정을 끊어 홍진세상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원컨대 재자가 되어지이다. 여기서 반본도 환원동이 얼마나 됩니까?” “멀리는 하늘 끝이요, 가까이는 눈 앞이니, 승상 스스로 마음에 물어 보고 다음에 내게 물어시오.”<sup>39)</sup>

위의 부분은 〈경화연〉 44회와 46회에서 따온 내용을 자연스럽게 합친 것인데,

39) 〈구운기〉 (3), pp. 256~257.

이에 해당하는 <경화연>의 내용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小山)因問道：「仙姑此時從何處至此？」道姑道：「我從不忍山煩惱洞輪回道上而來。」小山暗暗點頭道……因又問道：「仙姑此時何往？」道姑道：「我要到苦海邊回頭岸去。」小山付道：「據這禪語，明是「苦海無邊」「回頭是岸」了。」連忙問道：「那「回頭岸」上，可有名山？可有仙洞？」道姑道：「彼處有座仙島，名喚返本島；島內有個仙洞，名喚還原洞。」小山不等說完，即又問道：「仙姑所訪何人？」道姑道：「我所訪的，並非別人，是那總司群芳的化身。」小山聽了，心中若悟若迷，如醉如醒，不知怎樣才好。呆了半晌，不覺下拜道：「弟子愚昧，今在苦海，求仙姑大發慈悲，倘能超度，脫離紅塵，情願作爲弟子。」<sup>40)</sup>

小山道：「請問仙姑：此去小蓬萊，還有若干路程？」道姑道：「遠在天邊，近在眼前，女菩薩自去問心，休來問我。」<sup>41)</sup>

<경화연> 44회 부분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道姑로 전화한 백초선자의 권유로 仙芝를 받아 먹은 당소산과 백초선자 사이에 이루어진 문답 내용이다. 작중 인물만 달리 나타나는데 <구운기>에서는 도고가 화상으로, 당소산이 위왕(양소유)로 대체되었다. 대화도 앞부분의 내용만 조금 다르게 배열되었고, 중간 부분의 群芳의化身이 先覺化身으로 달리 나타날 뿐 나머지 내용은 거의 같다. <경화연> 46회 부분도 당소산 일행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道姑로 전화하여 도와주러 나타난 百果仙자와 주고 받는 대화 내용이다. 작중인물만 <구운기>와 달리 나타나는데 도고가 화상으로, 당소산이 위왕으로 대체되었다. 여기서도 앞서 거론한 <경화연> 5, 91회와 <구운기> 34회에서 이루어진 영향과 같이, <경화연>에서 두 개의 장회로 서술된 내용을 <구운기>에서는 한 대목으로 묶어 자연스럽게

40) <鏡花緣> 上, p. 328. (44회)

41) <鏡花緣> 上, p. 340. (46회)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경화연> 61회와 <구운기> 31회 사이에서 이루어진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구운기> 31회에는 두 공주와 여섯 남자들이 茶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상당히 긴 장면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31회 전체 분량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바로 <경화연> 61회의 내용 거의 전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작중인물만 문맥에 맞게 재배열 시킨 것이다. 이 부분의 내용을 한 편씩 인용해 보면, 먼저 <구운기> 31회에서 두 공주와 여섯 남자들이 한가로이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정사도가 영양에게 茶를 보내오자 이를 달여 마시면서 진숙인과 영양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진숙인이 또 말했다. “이 차는 茶葉만 맑은 향기를 지녔을 뿐 아니라 물 맛 또한 감미롭습니다. 이에 영양이 대답했다. “妹妹께서는 모르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 차나무는 집의 아버님이 젊으실 때 심은 것입니다. 가친께서는 글을 읽고 글씨를 쓰시는 일 외에는 좋아하시는 바 없어서서 단지 차를 좋아하시나 요즘 차값이 가짜가 많아, 重費를 아끼지 않고 각처에서 파천, 협산, 대수와 같은 좋은 품종을 구입했습니다. 또 반드시 많은 힘을 들여 배에 싣고 와야만 했습니다. 차나무는 옮겨 심는 것을 싫어함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심으면 천 그루를 심어도 하나도 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의 결혼에 下茶의 예가 있는데, 이는 옮겨 심을 수 없는 뜻을 취함입니다. 당일 정신을 들이지 않고는 한 그루를 옮겨 심으면 그 한 그루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연고를 알았습니다.”<sup>42)</sup>

<경화연> 61회에서는, 여러 才女들이 女試에 응시하기 전 綠香亭에 모여 茶를 달여 마시면서, 閹臣과 紫瓊이 주고 받는 대화에서 위의 내용이 보인다.

閹臣道：「適才這茶，不獨茶葉清香，水亦極其甘美，那知紫瓊姐姐素日却享這等

42) <구운기> (3), p. 141.

清福。」紫瓊道：「妹子平素從不吃茶，這些茶樹都是家父自幼種的。家父一生一無所好，就只喜茶。因近時茶葉每每有假，故不惜重費，於各處購求佳種：如巴川峽山大樹，亦必費力盤駁而來。誰知茶樹不喜移種，縱移千株，徒無一活；— 所以古人結婚有「下茶」之說，蓋取其不可移植之義。— 當日並不留神，後來移一株，死一株，才知是這緣故。」<sup>43)</sup>

작중인물만 달리 나타나는데 <구운기>에서는 閨臣이 진숙인으로, 紫瓊이 영양으로 대체되었다. 앞서도 밝혔지만, 두 작품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의 영향 관계는 그 정도가 상당히 심하나, 구체적인 예문 대비는 이것으로 그치기로 한다.

다만 주목을 요하는 것은 <구운기>의 작자는 <경화연>에서 이 장면의 삽화를 그대로 차용하면서도, 창의력을 발휘하여 <경화연>에 없는 부분을 보충하여 문맥에 맞게 서술하고 있고, 또한 일부는 다른 책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 대목을 새롭게 꾸미고 있다는 점이다. 茶를 따는 법에 관하여 서술한 아래의 내용이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차를 따는 절기도 중요합니다. 따는 시기가 너무 이르면 맛이 온전치를 못하고, 늦으면 기운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穀雨 전 오일이 가장 좋고, 곡우 뒤 오일이 다음이며, 그 다음 오일이 그 다음으로 좋습니다. 차의 눈이 자줏빛인 것이 가장 좋고, 껍질이 주글주글한 것이 그 다음입니다. 둥근 잎이 또 그 다음입니다. 가는 대 모양으로 된 것이 가장 못합니다. 밤새 이슬 맞지 않고 탄 것이 가장 좋으며, 해가 쪼일 동안에 탄 것이 그 다음이며, 비를 맞고는 따지 말아야 합니다. 또 산골에 있는 것이 가장 좋으며, 대나무 숲아래 있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쟁쟁 햇볕 받는 돌맹이나, 누른 모래 가운데 있는 것은 다 좋지 못합니다.<sup>44)</sup>

43) <鏡花緣> 下, pp. 453~454.

44) <구운기> (3), p. 143.

위의 인용 부분은 <경화연>에는 드러나지 않고, 「茶神傳」의 「採茶論」에 나오는 내용인데, 원문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採茶之候，貴及其時。太早則味不全，遲則神散。以穀雨前 五日爲上，後五日次之，再五日又次之。茶芽紫者爲上，而黼皮者次之，團葉者次之，光面如篠葉者最下。徹夜無雲，溼露採者爲上，日中採者次之，陰雨下不宜採。產谷中者爲上，竹林下者次之，爛石中者又次之，黃砂中者又次之。<sup>45)</sup>

「茶神傳」은 곧 초의선사(1786~1866)가 청나라 毛煥文이 지은 백과전서인 「萬寶全書」중의 「茶經採要」 부분을 抄出해서 엮은 책이다.<sup>46)</sup> 따라서 <경화연>에는 없는 이러한 대목이 <구운기>에 있다는 사실은, <구운기>의 작자가 <구운기>를 엮을 때 <경화연> 외에도 「茶神傳」이나 「萬寶全書」 중의 어느 하나를 참고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sup>47)</sup> 여기서 <구운기>의 작자가 이 대목을 「다산전」이나 「만보전서」 중 어느 곳에서 인용하였느냐 하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작품 속에 茶에 관한 이렇게 해박한 내용을 삽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작자의 서술 태도가 <경화연>의 그것과 유사한 백과전서적인 서술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sup>48)</sup>

45) 김명배, 「韓國의 茶書」, 탐구당, 1984, p. 170.

46) 김명배, 앞의 책, p. 202.

47) 물론 여기에는 <구운기>의 작자가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경화연>의 新式 排印本과는 다른 版本이나 寫本을 보았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오늘날 여러 출판사에서 간행된 排印本들의 내용이 거의 같고, 이 배인본을 처음 꾸밀 때 참고 하였던 4종의 舊版本 역시 내용에 별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하정옥, 앞의 논문, pp. 55~57.) 위와 같이 말할 수 있다.

48) 서구문학과는 다른 중국서사문학의 특징의 하나로 '점점 넓은 형식으로 확장되어 가는 서사문학의 일반적 경향으로 말미암아, 소설은 종종 범위에 있어 방대한 양의 백과사전에 근접 (weighty volumes which approach the encyclopedic in scope) 하는 것이 된 점' 을 들수 있는데 (Andrew H. Plaks, 앞의 논문, p. 347.), <경화연>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또한 <구운기>에 나타난 이러한 서술 태도도 <경화연>을 비롯한 기타 중국소설에서 영향 받은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경화연> 71회와 <구운기> 35회 사이에서 이루어진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구운기> 35회에는 양승상이 각몽 직전 九雲樓에서 여러 낭자들과 자손들에게 효와 인간의 도리에 관해 언급한 世教에 관한 내용이 길게 전개되고 있다. 그 일부만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고인이 말하기를 가장 훌륭한 도는 다만 좋은 일을 하고 前程을 묻지 말라 하였다. 또 선악이 밝게 비침은 마치 형체에 따라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과 같으니 일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말고 이런 이치에 따라 행하면 天地君親에게 옳게 대함이 되어 가히 俯仰하여 부끄러움이 없다 했다. 오늘 온집안이 여기 다 모였는데, 이는 다 아들 딸 손자들이라 내 번거로움을 혐의치 않고 몇 마디 이야기를 하지. 무릇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 옳은 인간이 되려면 일체의 行動舉止와 言談存心에 항상 그 중에 처하고 언제나 참됨을 강구해야 하나니, 대략 그 요점을 간추리면 오직 다음의 네구절만이 일생일세에 좋은 법도를 행할 수 있지. 이 네구절이란 곧 성인이 말씀하신 '예 아니면 보지 말고, 예 아니면 듣지 말고, 예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다.<sup>49)</sup>

위의 인용 부분 외에도 양승상은 철저히 유교사상에 입각한 孝와 友愛와 善行을 상당히 길게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내용은 <경화연> 71회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과시에 합격한 100 才女들이 閑談을 즐기던 중 師蘭言이 한 말의 일부이다.

古人說的最好，他道：「但行好事，莫問前程。」又道：「善惡昭彰，如影隨形。」無論大小事，只憑了這個「理」字做去，對得天地君親，就可俯仰無愧了。今日大家在此相聚，總是同年姐妹，非泛泛可比。諸位姐姐若不嫌絮煩，妹子還有幾句話。卽如爲人在世，那做人的一切舉止言談，存心處事，其中講究，眞無窮盡。若要撮其

49) <구운기> (3). p.247.

大略, 妹子看看去, 只有四句可以做得一生一世良規. 你道那四句? 就是聖人所說的: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sup>50)</sup>

〈구운기〉의 사상적 고찰에서 소홀히 취급될 수 없는 이러한 내용을 〈경화연〉에서 따왔다는 사실은 〈구운기〉의 작자가 〈경화연〉의 서술 태도와 사상에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는 〈경화연〉을 번역하여 〈제일기언〉이라 命名한 홍희복이 그 번역 동기로 '사람을 유익케 하는 언어가 많아 시속 소설의 투를 벗어났고, 경서와 사기를 인증하되 모두 분별이 있고 시비를 질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든<sup>51)</sup> 사실과도 어느정도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다.

다음은 끝으로 〈경화연〉 70, 75, 78, 84, 85, 86, 87, 91, 93회와 〈구운기〉 32, 33회 사이에서 이루어진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부분에서 이루어진 영향은, 도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모두 작중인물들이 주고 받는 笑話에 관한 내용이다. 〈구운기〉는 후반부로 올 수록 긴장되고 활기찼던 사건의 배열이 평화롭고 정적인 상태로 변하게 되어 스토리 진행의 템포가 느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笑話도 작품의 후반부인 32, 33회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구운기〉 32회는 두 공주와 여섯 남자들이 玉香院에 모여 美人詩를 읊은 뒤, 계섬월의 제의로 주사위 놀음을 하다가 그 벌칙으로 여러 남자들이 소화를 하게 된다. 〈구운기〉 33회는 양승상의 여섯 자식들이 과거에 급제하고, 팔남 육녀의 혼사를 다 치른 뒤, 양승상의 제의로 승상과 두 공주와 여섯 남자들이 함께 九雲樓에 올라가 한가로이 笑話를 즐기게 된다. 〈경화연〉 후반부에는 武則天이 女試를 開科하여 100명의 才女를 뽑은 후 연회를 베풀도록 하자, 才女들은 이틀동안 여러차례 경축연을 열고 算法·燈謎·酒令·雙陸·投壺 등의 갖가지 놀이와 笑話를 즐기고는 각자 헤어져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길게 서술되고 있다. 〈구운기〉에 영향을

50) 〈鏡花緣〉 下, p. 529.

51) 정규복, 앞의 註 11)의 논문, p. 84.

준 笑話는 모두 이 때 才女들이 즐긴 笑話들이다.

앞의 도표에 나타난 笑話의 제목은 필자가 그 내용을 요약하여 편의상 붙인 것이다. 두 작품 사이에 모두 18개의 소화가 영향을 주고 받고 있는데, 작중인물만 다를 뿐 <구운기>는 <경화연>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구운기> 33회 후반부의 내용은 거의가 <경화연>에서 수용한 소화로만 이루어졌다. 도표의 순서대로 笑話를 행한 <경화연>과 <구운기>의 작중인물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의 앞부분이 <경화연>의 작중인물이고, 뒷부분이 <구운기>의 작중인물이다.

장사꾼의 장인국·소인국 표류 소화(唐閨臣/양소유), 구더기와 黃食 소화(孟紫芝/기춘운), 여동빈의 點石成金之術 소화(孟紫芝/심요연), 당나라의 주인에 대한 抗命 소화(孟紫芝/적경홍), 富翁의 종 학대 소화(孟紫芝/계섬월), 부채에 글 써주는 소화(張鳳雛/양소유), 和尚의 禪機 소화(蔣星輝/백능파), 선기 소화를 응용한 소화(印巧文/적경홍), 王氏 형제의 作名 소화(玉兒/영양), 武士의 射鵠 소화(玉兒/영양), 老翁의 一手屎 소화(玉兒/기춘운), 공야단의 長技 소화(孟紫芝/백능파), 공야왜의 長技 소화(孟紫芝/백능파), 말더듬이의 穀穀 소화(孟紫芝/진채봉), 解者의 和尚 호송 소화(玉兒/백능파), 도학선생과 소년의 문답 소화(玉兒/적경홍), 醉漢의 冥官 대면 소화(祝題花/진채봉), 선생의 방귀꺼는 소화(祝題花/계섬월)

그러면 이상의 소화들 중에서, 일일이 그 예문을 들어 확인해야 되겠지만 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경화연> 93회와 <구운기> 33회에 나타난 '醉漢의 冥官 대면 소화' 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진숙인이 말했다. “이야기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웃음거리가 못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하지요. 한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끝없이 술을 마셔 취해 정신이 없는 중에 小鬼에게 붙들려 冥官殿下에게 끌려갔습니다.



명관이 심문을 하려는데 마침 그가 酒性을 발작하여 술기운을 토해 내어 그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명관은 코를 막고 소귀를 원망해서 ‘이렇게 대취한 사람을 왜 잡아왔느냐. 빨리 놓아 돌려보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돌아와 보니 마누라와 아이들이 둘러 앉아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일어나 ‘내 혼이 이미 돌아왔으니 이제 울 필요가 없다. 술이나 가져오너라.’했습니다. 마누라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남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당신은 술을 너무 마셔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났는데 어찌하여 또 술을 마시려 합니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을 내며 ‘너희들이 어찌 알겠느냐. 빨리 술이나 가져오너라. 술 못 먹게 하는 사람이야 취하면 취할 수록 더 좋다는 걸 어찌 알겠나.’ 했지요. 마누라는 ‘그건 또 무슨 이유입니까?’ 하니 이 사람은 ‘너희들은 모른다. 내가 술을 깨면 죽고마니까 그렇지.’ 했습니다.”<sup>52)</sup>

題花道：「我因春輝姐姐才說醉死之話，却想起一個笑話：一人最好貪杯。這日正吃的爛醉，那知大限已到，就在醉中被小鬼捉去。來至冥官殿上，冥官正要問話，適值他酒性發作，忽然大吐，酒氣難聞，冥官掩鼻埋怨小鬼道：「此人如此大醉，爲何捉來？急速放他回去。」此人還陽，只見妻妾兒女都圍著慟哭，連忙坐起道：「我已還魂，不必哭了，快拿酒來！」妻妾見他死而復生，不勝之喜，一齊勸道：「你原因貪杯太過，今才活轉，豈可又要飲酒！」此人發急道：「你們不知，只管快些多多拿來，那怕吃的人事不知，越醉越好。」妻妾道：「這却爲何？」此人道：「你不曉得，我如果醒了，就要死了。」<sup>53)</sup>

이와같이 작중인물만 달리 나타날 뿐 소화의 내용은 완전히 일치하며, 나머지 소화들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구운기의 작자가 <경화연>으로부터 소화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은 하되, 창의력을 발휘하여 <경화연>에 없는 부분을 몇 마디 더 보탠 것도 있는데, ‘王氏형제의 作名 소화’가 바로 그것이다. 즉 <경화연>에는

52) <구운기> (3), pp. 206~207.

53) <鏡花緣> 下, p. 724.

왕자 성을 가진 팔 형제의 이름과 작호만이 나열되어 있으나, <구운기>에는 여기에다가 두 명을 첨가하여 아홉째, 열째 번의 이름과 작호도 제시하고 있다.<sup>54)</sup> 외국 소설로부터 삽화를 차용하되 필요한 부분은 문맥에 맞게 새로 꾸며 보충하고 있다는 사실은 작자가 이야기꾼으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상으로 <경화연>과 <구운기> 사이에 드러난 영향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런데 본고의 목적이 <구운기>의 원천연구의 일환임을 감안하여, 위에서 밝힌 사항 외에, 작자가 <구운기>를 개작할 때 참고하였던 기타의 서적과 소설 작품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구운기> 2회 첫부분에는 양소유의 가계를 소개하면서, 소유의 아버지 양계조가 東漢 安帝 時的 尚書 楊震의 후예라고 한 뒤, 다음과 같은 고사를 언급하고 있다.

진이 일찍이 자사로 있을 때, 전에 그가 천거한 왕밀이 밤에 찾아와 금덩어리를 주었다. 그래서 진이 말했다. “故人은 그대를 아는데 그대는 고인을 모르는구나.” “늦은 밤이라 알 턱이 없습니다.” “하늘도 알고 신도 알고 나도 알고 그대도 아는데 어찌 모른다고 하리오.” 하고 물리쳐 받지 않았다.<sup>55)</sup>

(震嘗爲刺史之郡, 前震所舉王密, 爲令夜懷金遺之, 震曰: 「故人知君, 君不知故人。」 密曰: 「暮夜無知。」 震曰: 「天知神知我知子知, 何謂無知。」 却而不受.)<sup>56)</sup>

양소유가 청렴한 집안의 후예임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한 위의 고사는 後晉 시대의 李翰이 지은 「蒙求」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다.<sup>57)</sup>

또한 <구운기> 2회 중반 부분에는 양소유의 어머니 유부인이 해산 후 몸에

54) <구운기> (3), p. 205.

55) <구운기> (1), p. 33.

56) <九雲記>, 1권 2회 28~29면.

57) 「蒙求」는 李翰이 지은 史書로서, 上古부터 南北朝까지 이름난 사람의 言行을 들쭉 짚지어 배열하고 그 제목은 四字句 二行의 韻語로 기록하고 있는데, 위의 내용은 「震畏四知·秉去三惑」이라는 詩句 풀이의 앞부분이다.

열이 나는 등 상태가 좋지 않고, 소유도 젖을 먹지 못하자, 양계조는 조카를 보내어 興國州에 사는 安太醫를 모셔오게 하여 유부인과 양소유를 진맥하게 한다. 이 때 안태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이 안태의의 이름은 學古요 호는 一州다. 성탄이 찬한 水滸傳의 양산박 주인 급시우 송강이 등창을 앓고 있을 때 낭리, 백척, 장순이 神醫 安道全을 맞아다가 낫게 했다. 그래서 양산박에 우두머리로 들어갔다.……이 학교는 바로 도전의 후예다.<sup>58)</sup>

(且說這安太醫名學古號一洲。這是聖嘆撰水滸傳，梁山泊主及時雨宋江，患了背瘡，浪裏白滸張順，邀致神醫安道全，療得瘡腫，仍以入類梁山泊。……這學古便是道全之後。)<sup>59)</sup>

名醫로서의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안태의를 〈수호전〉에 등장하는 神醫 안도전의 후예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작자가 〈구운기〉를 개작하기 전에 〈수호전〉도 미리 읽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렇게 보면 작자는 작중인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蒙求」와 같은 史書나, 〈水滸傳〉과 같은 중국소설의 한 대목을 끌어올 정도로 뛰어난 지식의 소유자이며, 〈서유기〉, 〈홍루몽〉, 〈경화연〉, 〈수호전〉 등 중국백화소설의 내용에도 정통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IV. 맺음말

이상에서 〈경화연〉과 〈구운기〉 사이에 드러난 영향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를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홍루몽〉과의 영향 관계 고찰에서 얻어진 결론과 함께 다루어 〈구운기〉의 원천을 살펴보기로 한다. 서술의 편의상 먼저 〈구운몽〉과 이를 개작한 〈구운기〉의 장회<sup>60)</sup>를 배열한 뒤,

58) 〈구운기〉(1), pp. 46~47.

59) 〈九雲記〉, 1권 2회 40~41면.

<구운기>의 각 장회에 영향을 미친 작품명과 그 장회 번호를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九 雲 夢	九 雲 記	영향을 준 작품과 장회 번호
<上>	<卷一>	
1. 老尊師南嶽講妙法 小沙彌石橋逢仙女	1. 西王母瑤池宴蟠桃 釋性眞石橋觀明珠	<경화연> 1회*, 100회
2. 華陰縣閨女通信 藍田山道人傳琴	2. 咸寧縣性眞投胎 飛騰舍捨誓說命	<경화연> 3회
3. 楊千理酒樓羅桂 桂嬋月鶯歌鸞賢	3. 百花結合席說功過 八仙娥同時降塵凡	
4. 情女冠鄭府遇知音 老司徒金榜得快婿	4. 華陰閨女唱和楊柳詩 紫虛真人傳授陰符經	
5. 詠花鞋透露懷春心 幻仙庄成就小星緣	<卷二>	<홍루몽> 3회, 5회
6. 賈春雲爲仙爲鬼 狄鶯鴻乍陰乍陽	5. 楊解元獨占花魁 桂嬋月自娛月姥	
7. 金鷲直學士吹玉簫 蓬萊殿宮娥乞佳句	6. 假女冠鄭府彈琴韻 巧春娥妬論論弓影	
8. 宮女掩淚隨黃門 侍妾含悲辭主人	7. 說婚姥老司徒起怒 孟關節太學士發誓	
<下>	8. 楊少游金榜擢將元 鄭司徒花冠迎嬌客	
9. 白龍潭楊郎破險兵 洞庭湖龐王安嬌客	<卷三>	
10. 楊元帥偷開印禪扉 公主敬服訪蘭秀	9. 鄭小姐畫齋賭茗 賈春娥纏隨詠鞋	
11. 兩美人携手同車 長信宮七步成詩	10. 賈春雲爲仙爲鬼 狄鶯鴻乍陰乍陽	
	11. 金鷲直學士吹簫 蓬萊別殿宮娥請詩	
	12. 秦宮娥掩淚隨黃門 陽學士陳情叫青鎖	
	<卷四>	
	13. 鄭司徒承旨饋婚 楊學士再破下獄	
	14. 日本國潛師犯青州 楊元帥鎮兵出濟南	
	15. 楊元帥擺開龍鳳陣 倭總兵敗走黎安州	
	16. 沈島姬捨願訴真情 吉平飛出兵說奇計	
	<卷五>	
	17. 廖先鋒誤殺盤蛇谷 楊元帥散夢白龍潭	
	18. 白龍潭元帥破險兵 洞庭湖龐王安嬌客	
	19. 平秀突施兵渡海 楊元帥秦凱選朝	
	20. 蘭陽主發服拜佛 鄭小姐承盲人宮	
	<卷六>	
	21. 鄭小姐罵得笑羅主 賈春娥續詠喜蘭詩	<홍루몽> 3회

60) 여기서 <구운기>의 장회명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문과문고에 소장된 9권 9책의 <九雲記>를 대상으로 하였고, <구운몽>의 장회명은 정규복 교수가 채구한 「老尊本」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존본」은 전체가 上, 下 합하여 16회로 나뉘어져 있으나, <구운기>에서와 같이 각 장회의 회수 표시는 되어 있지 않다. (정규복, 「구운몽원전의 연구」, 일지사, 1977. 참조.)

12. 楊少游夢遊上界 黃春雲巧傳玉語	22. 黃三軍元帥辭封爵 瓣花園春娘傳假音	
13. 合卷常蘭英相掛名 獻壽遙鴻月雙檀場	23. 兩公主一席合卷 雙鏡堂駁車入京	<홍루몽> 18회
	24. 英陽主諱名跋鄒氏 魏國公假病說鬼話	
	<卷七>	
	25. 西園新第兩公主出關	<홍루몽> 17회*
	東樓壽術二佳姪入門	
	26. 學賢良楊少總登第 求直言鄒雲綺釋疏	
	27. 胡伯遠按獄假犯人 嚴學初臨刑招史部	
	28. 悖逆子捨父喪命 奸黨賊籍產就戮	<홍루몽> 105회
	<卷八>	
14. 樂遊原會獵觀春色 油壁車招搖占風光	29. 樂遊園賞秋詠菊詩 打圍場看錦鷄寶瑟	<홍루몽> 38회*
	30. 莊嚴院丞相夢八仙 樓閣朝英陽麗雙男	<홍루몽> 53회
	31. 英陽主編評柏葉茶 白凌放羅宜牙牌令	<경화연> 61회*, <홍루몽> 40회*
	32. 懷陽主約畝美人詩 桂蟾月關姬脫角令	<경화연> 75회, 85회
	<卷九>	
	33. 三場試六子聯金榜 九雲樓八美說笑話	<경화연> 70회, 78회, 84회, 85회, 86회, 87회, 91회, 93회
15. 駝馬罰飲金厄酒 聖主恩借翠霞宮	34. 喪太君大家群芳閣 兩公主誓白女佛	<경화연> 5회, 91회
16. 織衣相登萬里遠 眞上人返本還元	35. 繼丞相賦疏乞養 眞上人返本還原	<홍루몽> 110회, 35회
		<경화연> 6회, 44회, 46회, 71회*

(\*는 영향의 정도가 심한 부분임)<sup>61)</sup>

위의 도표를 보면, <구운기>는 초반 몇 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후반부에서 <홍루몽>과 <경화연>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구운기>는 <구운몽>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주로 후반부에 와서 위의 두 작품의 영향을 받아 서술의 길이에 비해 사건이 단순하거나, 하나의 사건

61) 참고로 <구운기>가 <홍루몽>으로부터 영향받은 요소를 장희별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5회(양소유가 계שמ월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 계שמ월의 방안에 걸려 있는 대련 시구), 21회(정경매가 궁궐로 들어가는 장면), 23회(영양·난양 두 공주가 양소유에게 출가하는 대목), 25회(공주궁이 완성되자 양승상 일행이 유람하며 현판과 누정관사에 제명과 표제를 붙이는 대목), 28회(沒入한 장선의 장물 단자), 29회(양승상 일행이 낙우원에 모여 국화시를 읊는 대목), 30회(황궁에서 양소유에게 하사한 물품 단자), 31회(두 공주와 여섯 남자들이 몽우관에서 酒令놀이를 하는 대목), 35회(양계조 부부의 임종과 장례를 치르는 장면)” (출조, 앞의 註 2)의 논문, pp. 44~55., 최용철, 앞의 註 4)의 논문, pp. 199~207. 참조.)

이 있으면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서술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양소유와 딸부인들이 누리는 평화롭고 한가로운 분위기가 장면마다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양소유가 자손들에게 孝와 友愛와 善行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상당히 길게 서술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대부분은 생략을 해도 작품의 전체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이다. 따라서 후반부로 갈수록 스토리 진행의 템포가 느려지고 있다.

또한 영향의 수수관계가 너무 많이 드러난 나머지 <구운기>의 작품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구운몽>이 體裁(機軸)는 심히 좋으나 그 규모를 크게 펴지 못한 것이 애석하다고 조선 후기의 한 儒者가 지적했듯이<sup>62)</sup>, <구운기>의 작자도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운몽>을 확대 개작했는지는 모르나, 뛰어난 재능과 학식을 가지고서도 개작 부분의 상당량을 작자가 새롭게 창작하지 않고 외국소설에서 취해 왔다는 점은 아쉬운 면이라 하겠다. 특히 \*표한 부분으로부터 영향받은 장회가 그러한데, <구운기> 25, 29, 33, 35회는 내용의 반 이상이 차용한 삽화로 이루어졌고, 31회는 내용의 거의 전부가 차용한 삽화로 이루어졌다. 다만 삽화를 무작정 차용한 것이 아니라, 스토리의 흐름에 부합되는 것만 선별적으로 여기저기서 수용해 와 한 대목으로 자연스럽게 처리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자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필요한 대목을 새로 만들어 문맥의 내용을 보충하였는 바, 이 점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홍루몽>과 <경화연> 모두에서 비슷하게 영향을 받았지만, <홍루몽>으로 부터는 <구운기> 29회의 국화시를 읊는 대목, 31회의 주령놀이를 하는 대목을 제외하고는 주로 배경이나 장면 묘사의 영향을 받았다. 이에 반해 <경화연>으로

62) 성현경 교수가 학계에 소개한,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夢遊野談」의 작자 李遇駿(1801~1867)은 그 '小說' 章에서, <구운몽>에 대해 중국문사들의 말을 빌어 "체재는 매우 좋으나 그 규모를 크게 펴지 못한 것이 애석하다(以爲機軸甚好, 而恨不能鋪張其事以成大篇幅)" 고 말하고 있다. (성현경, 「한국 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 pp. 302~304. 참조.)

부터는 儒佛道에 관련된 갖가지 사상이나 世敎에 관한 대목, 꽃과 소화에 관련된 내용 등을 영향 받았다.

이상의 논의에서 〈구운기〉의 원천과, 작품의 실상이 어느정도 드러났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보면 〈구운기〉는 비록 〈구운몽〉을 모체로 하여 개작을 시도하였지만, 확대·부연한 내용의 상당량이 지나치게 외래적인 요소에 의존해 있다는 점에서 개작에 성공한 작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삽화의 차용으로 인하여 변모된 내용을 가지고 조선후기인의 세계관을 운위하거나 작품의 의의를 논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필자는 이전에 〈구운기〉의 소설사적 의의를 논하면서, 〈구운기〉는 1830년 이후 독자들의 요구를 새롭게 의식한 작자가, 자기 만족을 겸하여, 〈구운몽〉을 계승하면서 거기에는 군담적 요소와 중국소설에서 영향 받은 삽화를 가미하여 규모를 크게 하는 동시에, 해학성과 서민 의식을 반영하여 근대소설적인 편린을 갖추도록 개작한 작품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sup>63)</sup> 또한 신재홍 님도 최근의 논고에서 몽유양식의 소설사적 전개 양상을 거론하면서, 〈구운몽〉이래 몽유장편소설이 지녔던 점잖은 웃음으로서의 해학성에서 벗어난 서민적인 유희와 해학이 〈구운기〉의 미학적 배경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구운기〉는 〈구운몽〉의 서술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는 하지만, 갈등의 심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실 반영의 측면이나 해학성의 변질 등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의의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sup>64)</sup> 그런데 위에서 거론한 윗절 친 부분의 내용은 모두가 〈홍루몽〉과 〈경화연〉으로부터 영향받은 酒筵놀이와 笑話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밝힌 사항이라, 지금으로서는 그 의의가 반감되고, 〈구운기〉의 독자성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하리라고 본다.

하지만 작품의 실상이 이렇다고 해서 〈구운기〉의 소설사적 의의가 완전히 부정

63) 졸고, 앞의 註 2)의 논문, pp. 109~110. (윗절 필자)

64) 신재홍, 「몽유양식의 소설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2, pp. 167~170. (윗절 필자)

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외래적인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운기>의 작자는 <경화연>과 같은 중국소설의 서술 태도를 본떠서, 작품 속에 博識多通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학자적인 자세에서 소설을 쓰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회있을 적마다 <홍루몽>과 <경화연>으로부터 삽화를 차용하는 것 외에도, 經典과 史書의 내용을 인용하고, 기타 자신이 알고 있는 해박한 지식을 작품 속에 포함시키려고 했다. 이러한 점은 앞서 살핀 「茶神傳」이나 「蒙求」의 내용을 수용한 것 외에, 양소유가 변방의 礦民을 鎮撫하고 돌아온 뒤 皇上과 함께 古今帝王의 治規와 文章詩詞, 君臣際遇에 관해 토론하는 대목<sup>65)</sup>, 두 공주와 여섯 낭자들이 양승상 일행이 읊은 국화시에 대응하여 美人詩를 읊는 대목<sup>66)</sup> 등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구운기>는 이른바 '구운몽계' 소설의 후대적 변모 양상의 하나로, 작자의 재주와 학식을 드러내고 世教에도 신경을 쓴, 우리 소설사에서는 보기 드문 '재학소설'의 범주를 새롭게 열고 시도한 작품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본고에서 확인한 이러한 사항이 한중소설을 대상으로 한 영향연구의 산물이라고 할 때, 국문학 연구에 비교문학적 방법론을 도입함에 있어 대비연구 못지 않게 영향연구의 중요성도 여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65) <구운기> (1), pp. 245~247.

66) <구운기> (3), pp. 161~176.